

INTERNI

& D e c o r



Bespoke Home
The Power of Materials_PLASTIC

MAY. 2020



2020 국내외 인테리어 타일 트렌드
2020 봄여름 패브릭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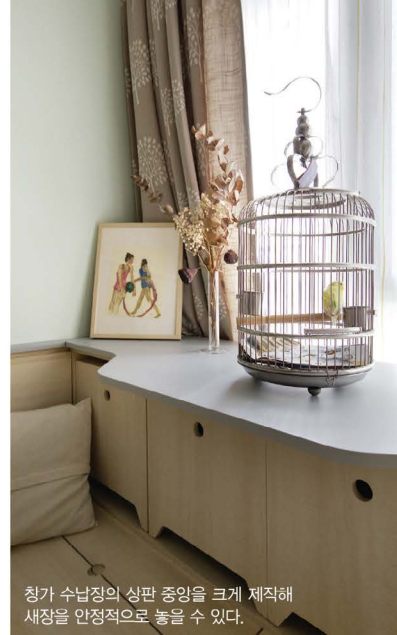


고양이와 앵무새, 어머니와 젊은 부부가 공존할 수 있도록 통합과 분리가 유연하게 구성했다.

One Place for Our Joy Pets Playground

Design / SIM-PLEX Design Studio
Location / Yuen Long, Hong Kong
Area / 42m²
Photograph / Patrick Lam

Who Live in 고양이를 키우는 어머니와 앵무새를 키우는 부부.
How to Design 개별 영역을 보장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휴식 환경을 마련했다.



청가 수납장의 상판 중임을 크게 제작해 새장을 안정적으로 놓을 수 있다.

고양이 한 마리만 들어와도 집은 확연히 달라진다. 사람과 동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 각자 다른 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들이 결혼, 세대 합가 등의 이유로 한집에 살게 된다면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 동물과 동물의 생활이 모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홍콩의 Pets Playground는 앵무새를 키우던 젊은 부부가 고양이를 키우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탄생한 주거로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특성과 영역을 존중받으면서 삶의 교집합을 이뤄나가기도록 사려 깊게 구성됐다. 디자이너는 주거를 어머니와 고양이의 공간, 부부와 앵무새의 공간으로 구획하고 각 영역에 반려동물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되 공간 사이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분리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한편 가구는 목재로 제작해 주거 전반에 편안한 분위기를 부여했는데, 친환경 멜라민으로 마무리해 고양이가 긁어도 표면이 상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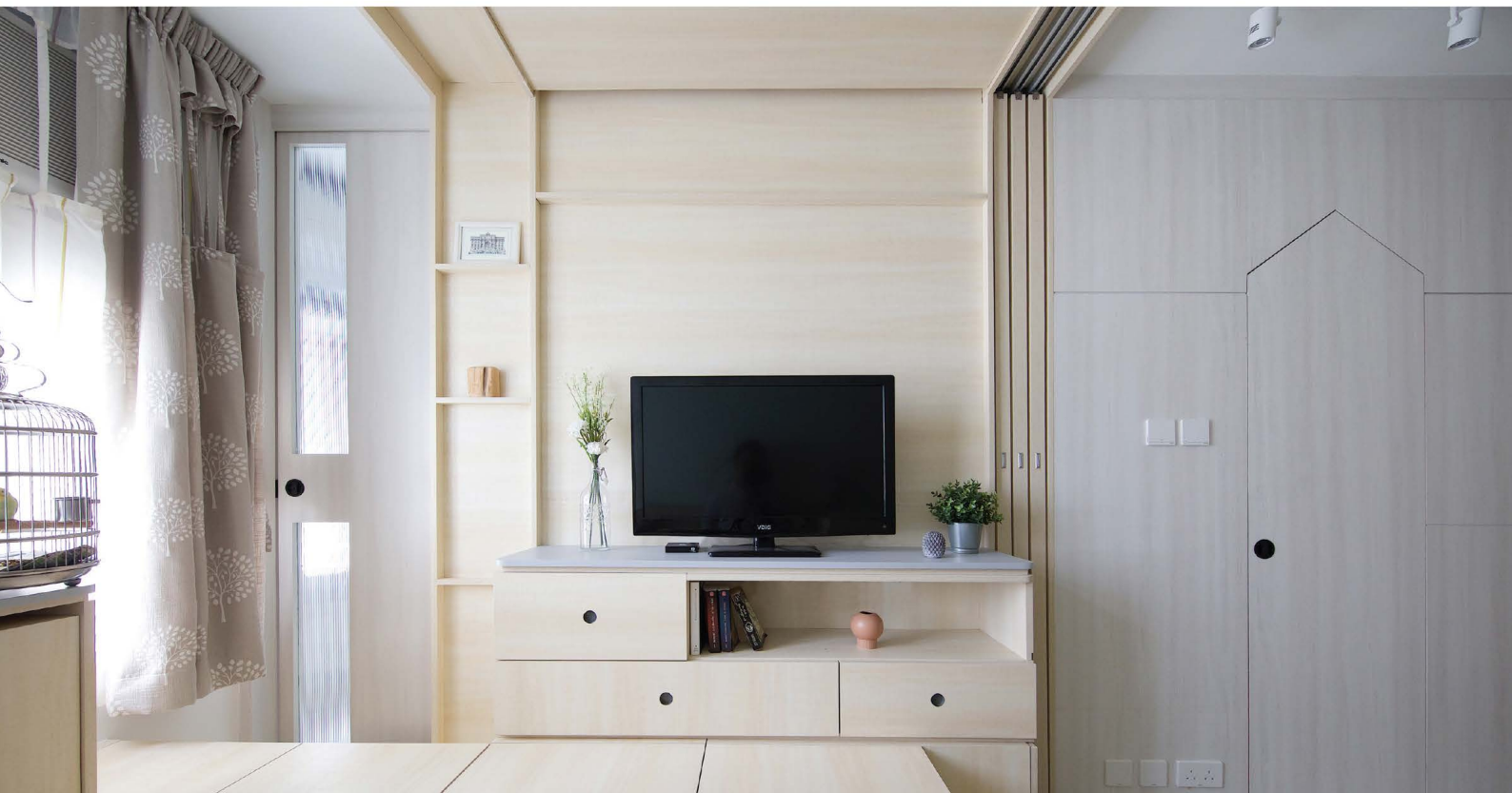




거실과 주방은 소결 유리 슬라이딩 도어로 구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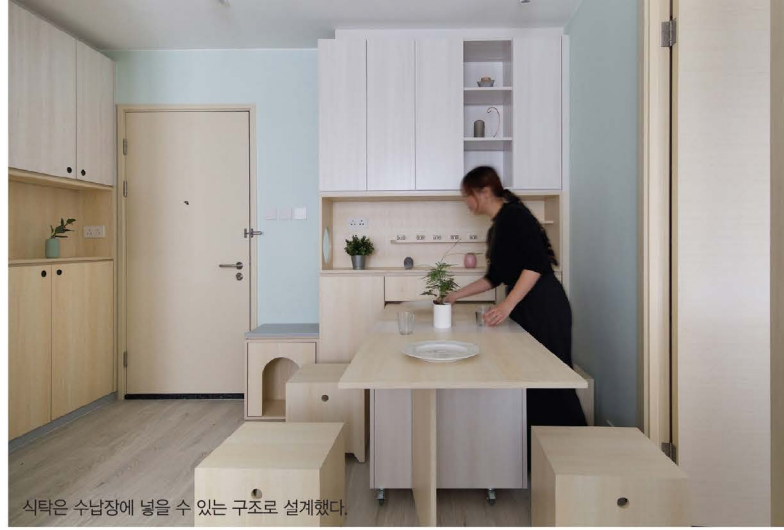
맞닿은 거실과 주방에 각각 침실이 연결된 구조의 주거는 중앙을 기준으로 둘로 나누었다. 현관을 열면 바로 마주하게 되는 주방은 어머니와 고양이, 그 너머 거실은 부부와 앵무새가 주로 사용한다. 앵무새가 오후마다 햇볕을 쬐야 해 큰 창이 있는 거실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창 앞에 배치한 수납장은 새장이 안정감 있게 자리 잡도록 상판 가운데를 조금 더 넓게 디자인했다. 거실에는 계단 두 개 높이의 단차가 있는데, 바닥 전체를 목재 수납장으로 계획해 비교적 넓지 않은 면적에서 수납기능을 극대화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맞은편에 위치한 주방은 식사가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조리 영역은 안쪽에 따로 마련하고 가구를 최소화했으며 식탁을 벽면 수납장 안에 넣고 뺄 수 있게 설계해 고양이가 널찍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현관 옆 의자와 수납장 곳곳에 원형 구멍을 만들고 어머니 침실의 가구에도 고양이 집과 캣타워를 만들어 생활 영역을 많이 뺏지 않으면서 고양이가 지루할 틈 없는 놀이터를 완성했다.





|나를 담은 집|





식탁은 수납장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다.

| 나를 담은 집 |



식사 시간 외에는 식탁을 숨겨 고양이
뛰어 놀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마련된다.